

매장→ 화장→ 납골

## 지금은 ‘산골(散骨)’ 시대

‘수림장’에 시선 집중... 은혜사·일불사·장안사 등 운영

정부, 20일 공청회 후 법률개정 움직임

‘매장(埋葬), 화장(火葬)과 납골(納骨), 그 너머 산골(散骨)로...’  
 장례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매해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토지가 묘지로 쓰인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무덤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71년 7%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2003년 46%를 넘어섰다. 최근 조사에서는 사후 화장을 원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매장’ 중심 장례 문화가 유행을 화한 후 일정한 장소에 모시는 ‘납골’에 수백 년간 지켜온 독보적 지위를 내주고 있다.

장례 문화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납골 장례문화도 최근 구시대적 방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과 납골묘 납골당이 조성되며 발생하는 환경 파괴, 최근 국민들의 뜨거운 시선을 모은 호화 납골묘 문제가 그 원인이다. 현재 납골묘도 2012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납골 장례문화의 대안은 무엇일까? 화장과 납골 장례문화의 빈자리를 메울 유력한 대안은 제3세대 장례 방법인 ‘산골’이다. 특히 화

장한 유골을 특정 나무 등 기념물 아래 땅에 묻는 수림장(樹林葬) 등 한국형 산골 장례법이 시선을 끌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보급에 나서면서 수림장 형태의 산골 장례법 제정이 큰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수림장 도입을 위해 여론을 적극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산골제도 도입 등을 위해 ‘장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림장 등 산골 장례법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4년 9월 타계한 원로 임학자 김장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수림장으로 치러지면서부터다.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는 일반 산골과 달리, 수림장은 장례 이후 추모 제사가 가능해 유족의 거부감이 적은데다 납골당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여기에 자연훼손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란 것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림장을 할 경우, 산골을 이용할 면서도 민통산 같은 무림지(無林地)를 수림장터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수림장 뿐만 아니라 화장장, 잔디장 등으로 전

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화장식 장례 문화 발원지인 불교계에서는 최근 수림장을 적극 수용할 태세다. 경북 영천 은혜사는 최근 5만평 규모의 소나무 군락지를 수림장터로 조성, 5월 24일부터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고 있다. 충남 일불사와 경기도 고양 장안사도 추모공원을 조성해 수림장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림장은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 수림장의 발생지 스위스는 현재 전국 26개 주에 55곳의 수림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률이 100%에 가까운 일본은 유골을 땅에 묻고 그 위에 꽃과 나무를 심는 수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림장 희망자 동호인 모임이 만들어지고 일가족 나무를 한군데에 모아 가족 정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장미나무 아래 산골을 한 뒤 나무에 고인의 명패를 걸어둔다. 독일 해센 주 호프가이스마리는 작은 도시에는 40만평의 참나무 숲이 수림장으로 조성됐다.

청와대 김인식 농어촌비서관은 “정부 차원에서 수림장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화재와 수해 등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경우 수림장이 미래의 장례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오른쪽)이 5월 28일(현지시간) 뉴욕 인터페이스센터에서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간 화합과 상생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한국불교 연구학자에 장학금 지원”

법장 스님, 하버드대서 종교학자들과 환담

“2차 세계대전 후 하버드대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는 일본인 1명 뿐이었지만 현재는 모두 8명이다. 특히 도널드 스웨이 교수가 불교학을 전공한 교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종교연구소 소장으로 최근 임명될 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한국불교를 가르치는 교수는 없다. (로버트 지멜로 교수·동아시아학 및 종교학) “현재 박사과정에서 있는 사람이 30여명 있다고 들었다. 한국불교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 중 2-3명 정도 전액 장학금을 줄 생각도 있다. 추천해 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티베트나 일본불교보다 상대적으로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법장 스님이 현지시각 5월 27일 미국 하버드대 세계종교 연구소를 방문, 장학금 쾌척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멜로 교수는 “하버드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학생들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또 불교신문사장 황적 스님이 한국불교 연구가 미약한 이유를 묻자 지멜로 교수는 “미국 내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한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점은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했고, 스웨이 소장도 “한국사람들의 정착기간이 짧아 대학 내 강좌가 많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임면 스님이 “한국불교 장단점에 대해 조언해 달라”라고 요청하자 지멜로 교수는 순천 송광사에서 몇 주 지냈던 경험을 소개하며 “선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중국불교사 수업시간에 송나라 시대 선 모습을 알고 싶으면 한국 선

방에 가보라고 한다”고 말했다. 지멜로 교수가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통합성’을 꼽자 법장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적 사상이나 이념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간화선에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법장 스님의 방문과 관련 스웨이 세계종교연구소장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 오셔서 깊은 관심을 보여준 것 자체가 매우 큰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9면  
 글·사진/미국 보스턴=남동우 기자

##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자연환경과 생명윤리’ 주제로

13~15일 예산 수덕사에서 개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13~15일 ‘자연환경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법장 스님, 일한불교교류협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등 양국 불교계 대표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제 2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3일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14일 오전 10시부터 황화정사에서 세계평화

기원법회, 세미나, 문화공연, 성지순례 순으로 진행된다.

기원법회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법장스님 대회사,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표백문,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홍파스님 상축,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부회장 윤덕스님 인사,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축사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이 2부 순서로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자연환경및 생명윤리세미나에는 한국측 총남대 철학과 이평대 교수와 일본측 다이쇼대 불교문화학회 회장인 다다고쇼 스님이 주제발표한다. 3부는 사물놀이(신앙초교생), 태평무(이육재), 축가(수덕사 합창단) 등의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6월 14일 오후 6시 30분 운양 프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충남도지사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15일 부여지역을 성지순례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 특장: 안정성과 그늘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미다 촛불이 흔들리는 특이한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 사용처: 부처님전, 산신각, 명화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색상: 자주, 흰색, 노랑, 파랑)

연꽃초: 법당, 탑들이, 방생 등 특히 야외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보현불교예술팀 불교용품·불상조성·전기촛불·양초제작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순’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 ‘할’

평소 꽃을 좋아해 겨울에는 아랫문을 양반꽃을 정도

下心은 어렵지요 하지만 하심을 하면 자기가 편해요

그림·조태호  
 화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현대불교신문사

#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올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  
 기성 쾌선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신국판/198쪽/가격 7,000원  
 독송집: 국배판/ 92쪽/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인터넷 주문배달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출판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대),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